

2012.01
www.dail.org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다일
공동체



2012, DA-IL FAMILY



언어와 얼굴은 달라도
국적과 피부색과 문화는 달라도
우리 모두 주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누군가를 위하여...

2012년 새 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기정에 행복이 넘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다일공동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천사운동을 시작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지고 운영된지도 벌써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구요.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1구좌 100만원씩 쌓은 눈물어린 정성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한국 개신교 최초의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의 기적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십시일반 정신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쓸 것을 아끼고 모아서 여행할 비용을 한 켠치고,
회갑잔치할 비용으로, 아이들 돌 반지 팔아서 등등
수없이 이어지는 감동적인 사연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 이러한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기근과 질병이 있는 곳곳마다
소외된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는 현장마다
불씨처럼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2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불씨가 더욱 확산되어

그 작은 불꽃들이 어둡고 차가운 땅을 더욱 더 따뜻하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새해에는 당신도 천사, 나도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진정한 천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누군가를 위하여...

2012년 1월에

작은형제, *침* 윈도 목사 올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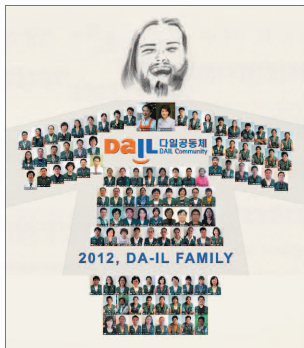
2012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 길 척추측만증 캄보디아 소년 뽀안이의 희망일기
- 06 Review 거리성탄예배
- 08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0 다일의 현장 묵안리 다일 평화의 마을
- 12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6 콩심는데 콩난다 해피빈나눔캠페인 콩으로 밥을 지어 주세요
- 18 포토에세이
- 19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들
- 20 다일 뉴스



다일
공동체

표지사진 설명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한 가족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미국등 국내외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다일공동체 가족들입니다.



척추측만증 캄보디아 소년

뽀안이의 희망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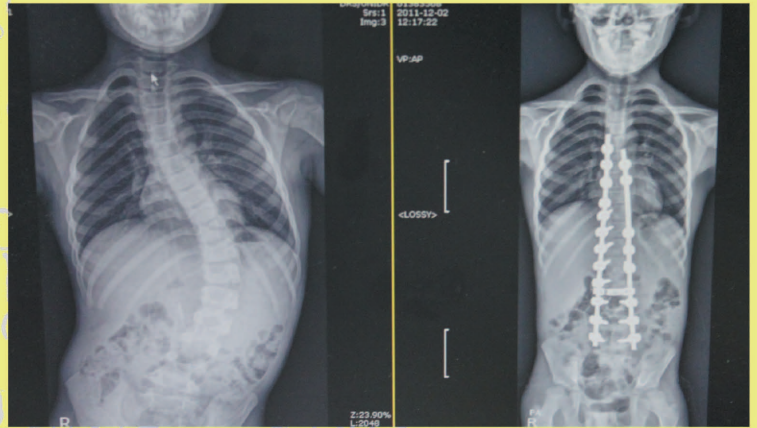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B.C.P-Beautiful Change Project)를 통해 척추수술을 받았던 뽀안이가 재수술차 한국에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깨끗하지 못한 환경과 부족한 영양 상태로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은 뽀안이가 희망의 꿈을 키워나갈 힘이 됩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의 수상빈민촌에서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하루 벌이는 평균 \$2 정도
아버지와 형들은 고기를 잡고, 어머니와 누나들은
포장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뽀안(10세)의 가족은 모두 8명입니다.
척추측만증으로 또래처럼 신나게 뛰어놀지 못한
뽀안이가 이제는 환한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증 재발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뽀안이의 한국 일정

- 2011년12월 1일 새벽 뽀안이와 엄마 한국입국
- 2011년12월 8일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재수술
- 2011년12월15일 퇴원 후 다일천사병원으로 입원
- 현재 천사병원에서 염증치료, 영양보충 및 건강개선치료 중
- 2012년 1월11일 외래 진료 후 의사진단에 따라 퇴원가능

척추수술을 위해 지난 여름 한국에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히 캄보디아로 돌아갔던 뽀안이가
2차 수술을 하러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거의 모든 날이 따뜻한 캄보디아에서 지낸 던 아이가
처음 접한 한국의 추위는 어떨까요?



위 · 수술전, 수술후
아래 · 보고싶은 가족들에게 편지쓰는 중
오른쪽 ·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

“눈을 아직 못봤어요,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걸 보고 싶어요.”

올 겨울 들어 서울엔 3번 정도 눈이 왔는데 아직 뽀안이는 눈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차 수술 후 다일천사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하얀 눈을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뛰노는 것보다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랍니다.
그래서 뽀안이와 엄마의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카드를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뽀안이네 집

글을 아직 모르는 뽀안이를 대신해 다일을 통해 한국대학에 유학 온 캄보디아 청년 리비다가 도와주었습니다. 편지에도 엄마는 캄보디아에서 고생하는 가족들 걱정 뿐입니다. 전해들은 소식으로 쌀이 다 떨어졌다는데, 밥은 잘 먹는지, 아버지의 건강은 괜찮은지 등등...걱정스런 맘, 보고싶은 맘을 담아 적었습니다. 뽀안이가 빨리 쾌유하여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달려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수술 후 뽀안이의 달라진 삶

“수술하고 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었어?”

“친구들과 뛰어 놀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많아요.”

라며 밝게 웃는 뽀안이는 참으로 타고난 개구쟁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이 병실 저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와 간호사 누나들의 이쁨을 차지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구쟁이 아이가 심하게 휘어진 허리로 인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코끝이 찡해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논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태권도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법 따라해 봅니다.

뽀안이의 희망

2차 수술을 위해 두 번째 한국에 방문한 뽀안이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리비다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는 뽀안



나도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우와~그럼 형처럼 크면 뭐가 되고 싶은데?”
 10살 뽀안이의 꿈은 의사, 선생님,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 등등
 아직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꿈꾸는 아이입니다.
 주사바늘만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뽀안이가
 12월 8일 다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수술실을 들어가 수술 후에는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10살,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작은 체구로 2번이나 힘든 수술을
 견뎌 뽀안이..
 수술을 앞둔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준 뽀안이의 엄마처럼 많은 분들이
 손을 모아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뽀안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뽀안이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은 한국에 방문해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마다 뽀안이가 더 건강해 지도록, 꿈이 한 뼘씩 더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편집부



뽀안이 후원하기

모아진 후원금은 뽀안이의 지속적인 방문시 사용됩니다.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B.C.P (B.C.P-Beautiful Change Project)

소외된 아시아 빈민촌의 구순구개열장애, 심장질환, 척추측만증 아동들을 한국에 초청해 수술을 통해
 인상이 변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00여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고, 해외분원이 있는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베트남, 중국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CP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28318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다일공동체 거리성탄예배는

1988년 청량리 야채시장에서 행려자 3명과 최일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거리성탄예배 후원하신 분들을 모시고
- 2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
- 3 축하무대를 꾸며주시는 송솔나무님

2011년 거리성탄예배에 도움을 주신 분들



4 나누어 줄 방한복을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
5 많은 이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방한복



6 외환은행 나눔재단 권택명 이사님의 밥퍼 봉사
7 방한복을 드리고 있는 모습
8 함께 동행한 박원순 서울시장



밥 한 끼의 나눔 당신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따뜻한 밥 '情'으로 함께해요

365나눔후원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예수님 생일날 열린 밥상공동체 가족의 회갑, 칠순, 팔순 잔치

2011년 12월 24일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밥퍼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회갑, 칠순, 팔순이 되도록 변변한 생일상 한번 받아보지 못하셨던 어르신들 여덟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상이 마련되고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칫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실내 가득 울리는 생일 축하노래와 향기 진한 꽃다발, 그리고 오고가는 선물들...

넉넉하게 차려진 생일상을 앞에 두고 함께하는 밥상공동체 가족들과 밥퍼 식당 안을 빼곡히 채운 자원봉사자들의 축하속에서 기뻐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이 날을 함께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날이지만, 23년만에야 생일상을 차려드린 것이 못내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북적북적한 잔칫날, 생일상 앞에 앉아 함께 기쁨을 누리려야 하는 올해 회갑 맞으신 김OO 어르신은 무료급식소인 밥퍼에 드나드는 것을 행여 누군가 알게 될까, 즐겁게 축하받을 수 있는 이 잠깐의 순간도 맘 편히 앉아 있기가 힘들어 축하 받아야 하는 그 자리마저 뒤로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빛을 지고 갈 곳 없어 가족들과도 생이별 한 채 떠 돈지 수년.

이런 날이면 노숙생활의 고단함과 서러움 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이 사무치는 듯합니다.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사연들을 가지고 밥퍼에 오시는 많은 분들.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귀수록 깊숙이

전해져오는 삶의 무게와 시린 마음들이 거침없이 그분들의 손을 잡게 만드는 사랑의 고리가 됩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았습니다. 2012년 올 한해도 밥퍼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이 샘솟고 새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밥 한그릇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우리의 따뜻한 미소가 근심을 사라지게 하기를 우리의 사랑의 말이 치유와 행복으로 이끌기를...

올해도 밥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글/황선아 과장

2012년 밥퍼캠페인

긍정의 맛 한 마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밥퍼는 ()이다’ 는 밥퍼 자원봉사자들의 한 줄 소감 나눔입니다.

“밥퍼는 살갓으로 느끼는 사랑이다” 외교통상부 / 이상희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해 왔지만 직접 땀 흘리고 밥을 드리는 봉사를 통해 실제로 나누는 일이 무엇인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상주 근무자님들의 노고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

“밥퍼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오릭스저축은행 / 장지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귀한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밥퍼의 사역에 넘쳐시길 기도합니다.

“밥퍼는 땀퍼이다” GH코리아 / 임운정

모든 사람들이 흘리는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공동체 같습니다. 이름만 스쳐지나가듯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해보니 반나절이 무수히 보낸 이전 몇날며칠보다 값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퍼는 소개팅이다.” 시스코 / 박찬광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날때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항상 새로운 봉사자들과 만나는 밥퍼는 소개팅입니다. 한번 잠깐 스쳐가는 여러 인연들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길에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냅니다.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밥퍼는 행복의 나눔터이다.” 글로벌텔레콤 / 지세호

밥퍼라는 곳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사회생활로 봉사하는 활동에 무색해진 제가 이곳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갑니다. 벌써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밥퍼 하루뿐이었지만 항상 마음 속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밥퍼는 엄마의 마음이다.” 서울시청 / 이선형

처음 경험해 본 일이지만 오늘 하루 정말 보람되고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아직도 하루 한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데로 나눔의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겠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후원회원님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 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복 누리시길 소망하며 희망합니다.

다일평화의 마을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절 올려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어 하루를 일년 같이, 일년을 하루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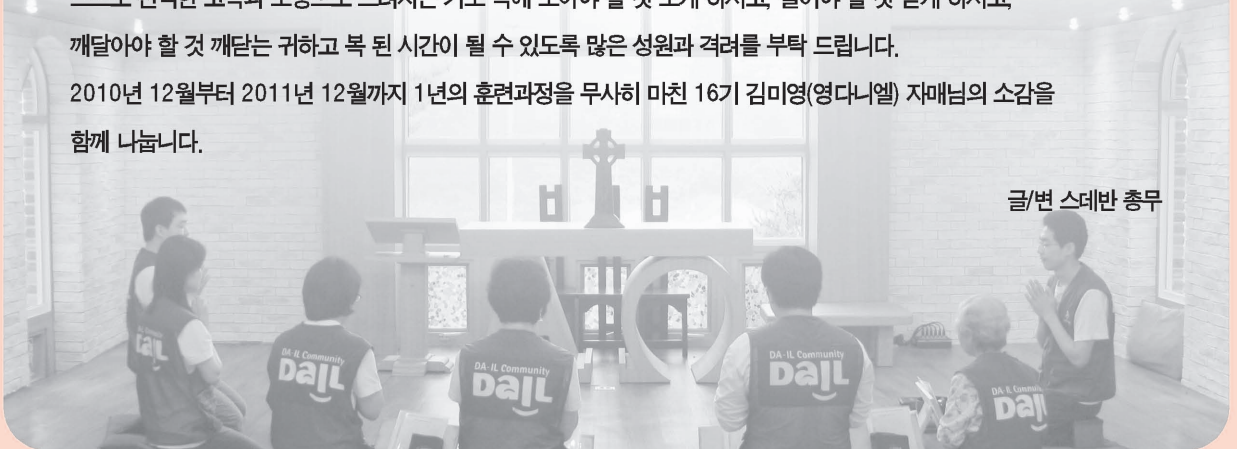
2012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밝아 온 새 해에도 DTS 훈련생들이 가슴이 터질듯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D.T.S 훈련을 통해 나시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과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노동으로 드러지는 기도 속에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는 귀하고 복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의 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친 16기 김미영(영다니엘) 지매님의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글/번 스테반 총무



DAIL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에서의 삶과 목표

1. 나시렛 예수의 영성생활

하루 3번 드러지는 기도시간과 8시간의 육체노동을 통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인 삶 훈련

2. 예배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바르게 세워 나갈

3.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본래의 환경을 떠나 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상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안목을 지니고 일해 나가는 공동체 생활 훈련

4.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

이 땅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 훈련



나에게 DTS는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9

DTS(Disciples Training School)에 대하여 아예 모르고 있었고 다일에서 1년을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꿈같이 흘러갔나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은 3단계 영성수련 후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 하나로 2010년 12월 25일 훈련이 시작되었고 3개월, 6개월, 1년으로 훈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MT 온 기분이었습니다. 또래 자매들과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은혜 받은 이야기, 삶의 이야기로 교제를 나누고 노동기도의 소임이었던 서각을 배우는 것은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쏠살같이 지나가고 어렵게 연장을 결정하여 다시 훈련이 시작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매들이 훈련기간이 끝나 형제들과 어른들만 훈련을 받고 있었고 요리의“요”자도 모르는 나에게 주방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주방의 일은 예상대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고 형제들, 어른들과 지내는 시간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르는 주방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5분후의 일을 모르는 훈련 생활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어렵게 내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의 손길을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드리는 조도, 만도, 대도의 세 번의 기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눈물샘은 고장이 났는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찬양과 말씀만 묵상하면 눈물이 흘렀고 주님의 사랑 밖에는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매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 음식은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가는 지금, 나는 아직도 훈련 중입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 더 애쓰고 주님의 사랑을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연약한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내딸 다니엘아!”

글/ DTS 훈련생 16기 김미영(다니엘) 님



마을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다일비전센터에서는
새벽 5시부터 아이들이 찾아와 밥을 먹으며
키가 자라고 꿈이 자랍니다.
우리는 네팔땅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날을 기다립니다.

꿈과 희망의 날을 기다립니다

카투만두에 심긴 희망의 씨앗

카투만두 외곽 지역에서 4년 전 심었던 씨가 지금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밥퍼, 유치원, 공부방, 어린이 예배, 의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있음을 느끼며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퍼주고 계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씨앗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다일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고 우리는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진료 받을 수 있고,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이들도 배불리 먹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토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센터가 빈민촌에 자리잡고 있으니 어두운 땅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다일비전센터에 책을 보내주세요.

다일비전센터 문은 새벽 5시에 열립니다.

마을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건물에는 도서관이 있어 일찍 온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찬양을 하다가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아직 비전센터가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지만, 차곡차곡 채워져서 센터의 책장 가득 책이 차고, 그 책들을 보며 꿈을 꿀 아이들을 그려봅니다.

또 센터에 오는 아이들 외에 네팔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구걸 대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 또한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에 동참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네팔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사려면 한국 돈으로 천원~오천원 정도하며, 아동 걸연을 통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에 매달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해주셨던 Koica 의사 선생님들과 네팔 다일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천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만 관심과 사랑으로도 참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하고 건강히 꿈을 키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글/팀세나 부원장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 B.C.P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B.C.P-Beautiful Change Project)

저여퍼디 거처디아예 는 10살 여자아이입니다. 엄마는 3년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금은 친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 다일비전센터를 찾은 아이의 첫인상은 입술이 심하게 벌어져 있었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입술로는 밥을 먹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래 아이들 같으면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데 저여퍼디는 벌어진 입술을 가리기가 우선입니다.

10살 소녀에게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삶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일복지재단에서는 “인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를 외치며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B.C.P)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구순구개열, 척추측만증, 심장질환으로 치료조차 못 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를 통해 아름다운세상을 찾았습니다.

저여퍼디도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로 인상과 인생이 변화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 02-2212-8004

BCP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28318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손을 잡은 그 후 이야기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라주

라주네 집에는 아빠가 아프셔서 일을 하지 못하고 엄마가 돌을 깨서 자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거의 4000Rs(\$5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일공동체의 후원 덕분에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키가 자라듯 꿈이 계속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라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주와 같은 처지에 있는 라주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전해 주세요.



센터를 찾아온 생후 20여일 된 쌍둥이들.
엄마의 젖이 부족하여서 도움을 청하러 온 엄마가 데려왔다

쌍둥이에게 분유를 지원해 주실 은인을 기다립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그 무엇보다 먹을 것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엄마가 잘 먹지 못하니 젖이 안 나오고

젖이 안 나오니 20일 밖에 안 된 쌍둥이들도

배가 고프니다.

캄다사모(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온 지 이제 두 달이 되어갑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사명실현지를 옮겨 참으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만으로 만났던 이곳 사람들을 직접 마주대하고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가슴 뛰게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캄보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사역을 가운데 마음의 분주함과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지에서 섬기는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봉사자들과의 만남

이 곳에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밥퍼 봉사부터 시작해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며 든든한 언니오빠가 되어주는 중, 장기 청년 봉사자들, 현금을 모아 목사님과 함께 봉사여행을 오시는 성도님들, 전에 봉사하러 오셨다가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다시오신 신혼부부, 정기적으로 오셔서 미용봉사를 해주시는 교민분들... 참 고마운 인연들이 많습니다.

아동 결연 후원자의 닭 선물

결연아동을 후원하시고 캄보디아에 오셔서 꾸준히 봉사하고 가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아이들의 집 지붕을 고쳐주시고 스투뿌억 마을과 센터인근 주민 가정 5곳에 각각 닭 6마리, 사료10Kg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퍼에서도 닭을 길러보라고 하시며 밥퍼 식당 아래에 울타리를 만들어 닭들을 가져다주셨

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계란말이 반찬과 빵퍼 빵을 만드는데도 이 닭들의 싱싱한 계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닭주림의 현장에서 다일공동체는 밥과 빵 뿐만 아니라 닭도 나누어주고 분유도 나누어 줍니다.

젓이 없어 배고픈 쌍둥이

얼마 전에는 센터에 쌍둥이 젓먹이를 안고 온 분이 계셨습니다. 쌍둥이 아기 둘을 낳은지 20일쯤 되었는데 젓이 안 나와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유가격이 매우 비싸서 어려운 형편에 분유를 사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기들에게 분유를 지원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시고 도우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사역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길, 지난번 홍수로 할퀴고 간 아픔의 자리마다 햇살의 눈부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들을 서로서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김영란 간사(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마을주민들에게 닭을 나눠주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김영란 간사는 무료급식 및 현지어동 일대일 결연 사역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855-89-53-9977

캄보디아 아동결연

매월 3만원의 정기후원으로 1:1 아동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행복한 꿈을 꾸게 되며, 더불어 생필품 등의 지원을 통해 한 아이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희망을 전달합니다.

1:1 결연을 통해서 아동들은!!

교육을 받아요

교육기회제공
 교육용품 및 학비지원

건강하세요

보건교육 및 영양활동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 점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방과 후 교실(태권도, 댄스, 음악, 컴퓨터, 한글, 영어, 미술 등)에 참여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편지, 선물 등을 통한 후원자와의 만남
 후원자의 현지를 방문을 통한 만남
 희망과 꿈의 교류

Dail 다일복지재단

로그인 My해피빈 내이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다일복지재단입니다.
저희 단체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모금함 보기 단체의 온라인 모금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 관심있는 단체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금함 > 더보기

- 진행 중인 모금함 3개
- 완료된 모금함 8개

기부하기

함께하는 이야기

해피로그 이모저모

새 소식
참여하세요
자원봉사 모집

생명을살리는 밥, 네팔아이들에게 따뜻한밥을

모금액 248,400원 (콩 2,484개)
목표액 6,000,000원 (콩 60,000개)
참여자 196명
모금기간 2011.11.29 ~ 2012.03.31
기부율 4%

기부 >

블로그/카페 담기

콩으로 밥을 지어주세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기부습관 해피빈
3500만 네티즌과 공익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는 네이버 해피빈은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하는 온라인 기부입니다.

기부방법안내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버 www.naver.com <해피빈> 다일복지재단 모금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콩으로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에서 콩이란?

기부아이템으로 콩 1개는 10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콩을 받으려면?

네이버에서 메일을 쓰거나, 블로그 카페에 포스트를 남기고 기부할 수 있는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모아진 콩들이 잠자고 있을꺼예요!

네이버<해피빈> 다일복지재단 콩 모금함에 잠자고 있는 콩을 모아주세요~~

다일복지재단 콩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dail/rdona/H000000057435>

네팔 카트만두 마느하르 강변의 빈민촌 전쟁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살 수 없어 밀려온 사람들, 불가촉천민으로 여겨지는 이들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2008년 1월 11일, 밥과 사랑을 먹이기 위해 밥퍼가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아이들의 하루 식사, 자신의 밥을 아껴 비닐봉지에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과 동생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식사, 밥은 생명입니다. 네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해 주세요.

- \$100 이면 300명 아이들이 한 끼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 \$300 이면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 \$400 이면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을 살 수 있습니다.
- \$1000 이면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전화 02-2212-8004 홈페이지 www.dail.org /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캠페인 기간

생명을 살리는 밥,
네팔 빈민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모금기간 : 2011. 11. 28 ~ 2012. 3. 31

모금목표액 : 6,000,000원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



주변지역 상황



카트만두 마느하르 강변 빈민촌 주거환경



다일천사병원 근처에 있는 쪽방들.

방마다 필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소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바퀴벌레 박멸도 필요합니다.

도배도 필요하고, 이불, 전기장판도 모자랍니다.

쪽방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직한 밥퍼 저금통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가 대부분이지만, 다 채웠다고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도와드릴 것이 없나 찾아온 쪽방에서

목직한 사랑의 도움을 받고 갑니다.

돌아오는 길 목직한 저금통의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전 하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하는 1평짜리 쪽방에 사시며 밥퍼에서 끼니를 해결하시는 쪽방 할머니도,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려 하십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1일 ~ 31일 후원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주)가나다	김영미	박재경	우정남	이준명	주진만
푸드시스템	김영완	박재균	원삼희	이진선	중앙상선(주)
(주)글로벌	김영진	박종문	유세연	이현정	지부근
텔레콤	김영찬	박진숙	유은희	이혜성	진중석
(주)오피스넷	김용민	박진주	유은희	이혜영	진화선
(주)우영	김원수	박진희	유호철	이호제	채강
조경건설	김은경	박정순	윤귀석	이호선	최무규
(주)유일	김일호	박해일	윤명경	이흥재	최설규
에너지	김장성	박향	윤명숙	인한제일교회	최성규
(주)유일	김제승	박희경	윤미자	임덕수	최영무
이이티	김정득	박희균	윤병하	임선빈	최영훈
(주)동림푸드	김정훈	배선희	윤유선	임지수	최용석
(주)한국	김중수	배천규	윤은란	임춘하	최은자
투자신탁	김중환	부평김리교회	(배석철)	임혜인	최은정
운용	김주한	서민수	이갑구	장명자	최혜경
(주)KIS	김준수	서안섭	이경호	장미진	폴라리스
정보통신	김지현	서정화	이금선	장성숙	인베스트먼트(주)
기포세련의원	김지환	신광영회	이기철	장순자	피경원
강명숙	김진호	신교현금	이동구	장승예	하재성
감미정	김창성	소향숙	이동일	장용익	한국외대
강정실	김필순	캄보디아	손나현	장윤정	ROTC
건축사사무소	김혜민	손형규	이명환	장윤한	한수빈
GEN	김혜련	송경순	이명희	장윤환	한수현
고근숙	김혜은	송영석	이복순	장의신	한승호
고주현	김홍물	송영애	이성규	장한수	한정규
고혁	(김성미)	송춘복	이성래	장혜란	한정희
고효주	김홍균	신수경	(이희백)	재단법인	한창희
공인순	남궁영미	신승민	이성열	이지웰	한혜숙
곽동진	노영숙	신용석	이수암	가족복지	한환수
곽동희	노영숙	신일교회	이수옥	재단	함주영
권경희	박산중3-15	청년부	이순학	전상섭	함창록
권기용	동대문구	신정암	이승아	전성희	허권구
권세희	사회복지	종합건	이연화	전애란	허석목
김경희	협의회	(유명숙)	이연화	전연란	허장권
김규수	동대문구청	(백승호)	이영미	정경석	허종욱
김규원	환경미화원	신중수	이영은	정서혜	(김은정)
김기웅	동천교회	신현대	이영자	정성운	현대증권(주)
김동운	중등부	신현석	이영호	정순복	홍남기
김미연	두정우	신희중	이용주	정영철	홍서기
김미정	다앤에프21	심규미	이우진	정은실	홍성란
김미희	류창엽	심연실	이유익	정은희	홍승난
김민진	문대숙	심인혜	이윤수	정채필	황상희
김병림	문원영	안덕준	이은희	정충진	황성준
김병만	미도시진관	일리안츠	이을순	정학재	11/30
김부희	박경근	글로벌	이인옥	조병현	12/3
김서연	박기근	인베스터스	이인자	조봉상	12/5
김선명	박대호	자선운동	이재철	조성을	경흥농장 굴 10kg 50box,
(3기포교실점)	박동균	애플약국	이정명	조성희	나이스트를 쌀20kg 50포
김선아	선교현금	양상욱	이정화	조은수	12/6
김선포	박미영	양선경	이정희	조재경	두리반김치
김선희	박상은	양선화	이정희	조정심	자식배추 20kg 1box
김성수	박석원	양혜정	이정희	(윤인근)	남민우 쌀20kg 8포
김성호	박성기	염삼열	이정희	조현길	홍중육생일 쌀20kg 10포
김소진	박수명	염태웅	이정희	조현주	사우트김치 김치 4box,
김승기	박영일	오연순	이정희		무명 굴10kg 10box
김애자	박원대	오준영	이정희		현대증권 김치
김애자	박은숙	용민지	이정희		30kg 60box
김연수			이정희		NICE

법파나눔운동 후원	송재준, 김충남, nsg홍소영,
김수일, 로앤교회, 동일교회,	김보나, 삼광교회, 박경환,
박종일, 박동욱, 채봉창,	허벌라이프, 최성봉,
일산은혜교회, 이종욱, 지하나,	최영화, 다일교회, 이문성,
태광티브로이드, 엠앤글로벌,	대한지적공사노조위원장,
러브필름, 윤순옥, 에이엠지코,	대한지적공사동대문지사,
정희주, 글로벌텔레콤, 정충진,	최경근, 양순화, 광영희,
박동균, 최다영, 한남대학교직원,	이형선, 이일옥, 이동열,
비전교회아이들, 동아제약,	신답초등학교, 남성교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천교회,	신민숙, 하이트트로(주),
이지웰가족복지재단	
후원물품	11/16 서울우유 1008,
서란여중 과일 12box	11/17 동대문적십자봉사관 빵,
ns홍소영 20kg 5포	11/18 양기화 쌀 20kg 1,
김치 20kg	11/21 김은희 쌀 20kg 50포,
소망교회 과일 30box	11/22 KT&G복지재단 김치, 양념
무명 배추	11/23 다일교회 (이복현) 배추 60포
이정남 쌀20kg 4포	11/24 자멘스초음파쌀20kg 1포
구권능 들기름 22병	11/25 무명 묵은김치 50kg
11/26 경희초등학교 김치 16box,	11/28 심삼만 싸갓 무, 쪽파 15자루,
최소년 정책연구원	11/29 무명 쌀20kg 1포,
조인심 묵은지 40kg,	11/30 수도권 신악회 쌀 10포
롯데백화점 배추, 무150개	12/3 한국투자신탁 김치 25box
12/5 경흥농장 굴 10kg 50box,	12/6 두리반김치
자식배추 20kg 1box	12/8 남민우 쌀20kg 8포,
홍중육생일 쌀20kg 10포	12/9 사우트김치 김치 4box,
무명 굴10kg 10box	12/10 현대증권 김치
30kg 60box	12/12 추역의 가요무대
굴10kg 20box,	무명 쌀20kg 1box,
경흥농장 굴 10kg 50box	

12/13 두리반김치	자식배추 20kg 1포,
중소기업중앙회 쌀 19box	12/14 YWCA쌀 20KG,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실험연구원 쌀 30KG
12/15 동아넷약, 비타민, 98포,	스킨아트 276개 박스1,000개
천사병원 후원	동천교회 중등부,
이선희교장선생님(서울중학교),	김한준할머니, CBRE 신우회,
황희창, 한동대 HDC,	각종 후원물품들
<해외분원>	내팔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성문용 목사, 평양새빛교회	노영래, 황인철, 김중현,
전미정, 허순덕, 이국현,	지춘란, 1004, 흥나미,
동천교회 중등부	전미정, 양림교회
중국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대전동안교회, (주)소명철강,
김형근, 한기모, 김정희,	지춘란, 서용란, 김민석,
이숙의(미국),	훈춘시 부녀연합회,
영광제빵(빵 후원)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나눔 회원(\$100의 가격)
우리는행 호치민 지점(\$300),	대한 어린이집,
임성호(30만원), 최다현,	
자원봉사자	우리는행 최철우지점장 외 9명,
포스콤CT 김광석 소장외 11명,	포스콤South Asia 서두석 외 4명,
최용하, 안연숙, 최다현,	최다린, 하미라, 이희애
후원물품	한,배 고층처리위원회 쌀 1,340kg
뚜레쥬르 빵 2886개,	오리온 : 초코파이 10box,
포스콤CT : 노트, 볼펜,	지우개 100set,
음료수,과자,	사탕, 초코파이120set
쌀 15kg, 바나나,	쌀10kg, 모기약,
라면 1box, 휴지,	5000,000동
박정희	500,000동,
문지연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PTS한인교회, 지일환, 한상소,	류정임, 임혜민, 문성호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월광교회여전도회34기 회장단	대한항공 기장
라온아띠 6기	고덕교회 성도 16명
시화동산교회,	유리, 밀양사포교회
양구군남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서울시교육청교직원	국외연수단일동
(주)투어클럽, 신우철	라온아띠4기 이정도
산주양초등학교3회졸업생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중국상해교민가족(김민선,	민준, 진희정, 영찬, 조권영,
환오, 유윤희)	이영민, 김보배 부부
무명	한달동안 국내외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시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
 www.dail.org
 연락바랍니다.

DAIL NEWS



롯데백화점 내 후원함 설치



천사병원과 작은천국에서 봉사한 한동대 HDC 학생들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내원 방문

지난 12월 24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원 방문을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다시한번 일어서기' 영성수련을 통하여 멘토가 되어주신 멘티 김세0님을 격려하여 주셨고, 캄보디아 소년 뽀안이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장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뽀안이 수술

뽀안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뽀안이의 수술을 위해 후원을 해준 오훈교회, 한양대구리병원 집도의 박예수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 사회복지과 임경숙선생님, 통역봉사, 간병봉사 등으로 섬겨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뽀안이는 이제 회복 치료를 위해 다일천사병원에서 1월 중순까지 입원하게 됩니다. 다시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뽀안이를 위한 봉사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롯데백화점 내 후원모금함 설치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겨울 내복 50벌과 김장용 배추 150포기를 기증해주셨습니다. 또 백화점 내에 다일천사병원을 위한 후원모금함을 직접 제작 및 설치까지 해주

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일천사병원을 위하여 다각도로 후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노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시작하신 청량리 롯데백화점 점장님과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 HDC학생 봉사

한동대학교 HDC 학생 12명이 12월 19일 ~24일까지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입소자들을 위한 식사준비부터, 저녁늦게 입소자들 간병봉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동대생들이 이곳에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천사병원 동대문구의회 활동

다일천사병원 김민준의무원장이 동대문구 의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다일천사병원은 지역의사회와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고 섬김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 요청

다일천사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우분들은 필수적으로 혈압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혈압계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후원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요청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의 자원봉사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의료진들의 재능기부도 필요합니다. 봉사와 재능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02-2213-8004

담당자 김래홍 주임

밥퍼나눔운동본부

거리성탄예배

12월 24일 11시 2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신답초등학교 이면도로에서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300여명의 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 메인 스폰서를 맡아주셨습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134기 영성수련 개최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대자연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이웃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찾기가 올해는 134번째 여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134기는 58분의 벗님들이 참석하여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선물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34기 영성수련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대관



필리핀비전센터 성탄 축하예배

침묵 묵상수련 2기 개최

고요한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영적 침과 충전.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에서 침묵 묵상수련 2기가 12월11일~13일 (2박3일)동안 김 연수사모님(등대)과 영성신학박사 이강 학목사님(아우)의 인도로 14분의 참석한 벗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33기 영성수련을 통한 후원

성민교회에서 지체장애부를 섬기는 김 애 자(김향기)님은 본인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이 번에 다 일의 사역에 크게 감동하여 1004만원 선 뜻 헌금하고 계속해서 5천만을 헌금하기로 약속 해 주셔서 다일공동체 가족들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치유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에서 권육상총 장님과 40명의 교수님들이 설곡산을 방문 해서 설곡의 아름다운 겨울과 즐거움을 만 격했습니다.

백석대학 늦깎이 대학생 10명, 영성벗님 프랑스 파리에서 온 말랑님과 10분가족, 133기 데이빗님, 주포님.

2012년은 설곡산에서 더 많은 벗님과 순례객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성도간의 친교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목안리 다일평화의 마을

김미영님의 훈련 수료

16기 김미영(영다니엘)님이 DTS 훈련을 마치고 다일복지재단 직원으로 함께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태현(들꽃) 형제님은 3개월 과정을 마치시고 사명 실현지인 다일작은천국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인 삶에 정진하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훈련 받으신 성실하고 신실하신 D.T.S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외분원 소식

필리핀다일공동체

성탄축하예배

12월 24일 성탄 축하 예배를 온 동네 어린이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성극과 징글벨 울동 찬양, 한국에서 부쳐 온 리코더를 배우고 익혀 연주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이 어우러져 성탄의 기쁨을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은 역시 예배 후의 선물 받는 시간이었지요. 500 명분의 선물 꾸러미 속에는 슬리퍼와 공책, 연필, 지우개, 크레용 그리고 빵과 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꾸리도록 후원해 주신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루 급식비 60,000원

한 주일 급식비 300,000원

한 달 급식비 1,200,000원

중국다일공동체

성남이의 군 제대

성남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훈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성남이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아이들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사

다일 어린이집을 퇴소한 사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 구제부 만남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섬김 위원회에 속해있는 대외구제부로부터 베트남다일공동체 발표를 위한 정기적인 후원 문제를 논의하고자 2012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섬김 위원회장 강창섭장로님과 전 섬김 위원회장 안두환장로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 장로님들은 다일공동체의 선한 사역을 잘 알고 있으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한·베고층처리위원회 쌀 후원

다일공동체에 교회 차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후원은 어렵지만 서서히 후원을 확대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베 고층처리위원회 쌀,340Kg후원

한,베 고층처리위원회에서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 쌀 1,340kg을 후원하고 직접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2월20일에 식사하러 오신 모든 분들 134명에게 1인당 10kg씩 포장되어 있는 쌀을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스코 ICT직원 크리스마스 선물과 봉사

매월 후원금과 봉사를 해주시는 포스코ICT 직원분들이 12월22일에 노트와 볼펜, 연필, 지우개 100set를 준비하시고 포스코 ICT 가족들은 음료수와 사탕, 과자, 초코파이 120set를 준비하여 식사하러 온 아이들은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주세요

하루 \$1000이면 120명의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후원방법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 미국달러(USD)용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직접 입금됨



포스코 ICT직원 가족 봉사활동

예금주 :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24

2. 베트남화폐(VND)용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직접 입금됨

예금주 :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37

3. 대한민국(KRW)용(기부영수증 발급가능)

다일 복지재단을 거친 후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입금됨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국민은행 467701-01-142594

입금 후 연락을 주시면 천사회원,

나눔 회원 명단(개인, 기업, 후원 단체명)이

베트남 다일 공동체 밥퍼센터에 새겨 집니다

미주다일공동체

송솔나무 초청 아시아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미주 순회공연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이며 다일홍보대사 송솔나무님의 아시아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미주 순회공연이 12월 3일 휴스턴 사랑의 교회를 시작으로 애틀란타 새생명교회와 유빌라테 카페, 앨라배마 헨스빌한인장로교회,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 시카고의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보상없이 댓가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매년 공연마다 수고해주신 송솔나무님, 그리고 아시아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에 함께 하여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모든 미주 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휴스턴 사랑의 교회 송솔나무 초청 공연 후

애틀란타 유니언 미션내 여성 홀리스 웰터에서 함께한 성탄절 아침

2011년 올해 성탄절 새벽에도 미주 다일공동체는 애틀란타 지역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애틀란타 유니언 미션내 여성 홀리스 웰터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새벽 5시부터 300명분의 따뜻한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일일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음식준비를 도와주신 송관호집사님 부부, 예배를 인도해주신 James Wilson 목사님, 주일날 새벽부터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들, 무엇보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가능하도록 지구촌 생명나눔 운동을 후원해주신 미주 다일 후원회원님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2011년 미주 다일공동체 정기이사회

설곡산에서의 2011년 마지막 다일영성수련 인도를 마쳐자마자 쉽없이 최일도 목사님께서 30일에 미국 애틀란타에 오셨습니다. 미주 다일공동체 정기이사회를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해도 미주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사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 다일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신 하나님, 2012년에는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말없이 행함으로 미주 다일공동체를 섬겨주시는 한국과 미국의 모든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Babfor 와
함께 하신
아름다운
얼굴들

"나는
밥퍼의 자원봉사자"



UL 코리아

12월 9일 비코리아는 직원들의 단합으로
밥퍼 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이스 그룹

회장님부터 앞장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나
이스그룹이었습니다.



동아제약

해마다 거르지 않고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아제약 봉사팀



세무법인 석성

정기 봉사료 이제는 가족과 같은 세무법인
석성 봉사팀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은 밥퍼 봉사 후
저금통을 가져가시며 3개월 후 꼭 채워오
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쌀도 함께 후원해주신 청소년정책연구원
봉사팀



서울메트로 신담사무소

서울메트로 신담 소장님께서 밥퍼 후원금
을 전달했습니다. 매달 2번씩 오는 서울
메트로 기관사님 최고!



청량리농협

청량리농협 지점장님 퇴직기념 쌀20kg
100포 기증하셨습니다.



인베스트먼트(주)

성탄을 맞이하여 밥퍼 봉사를 대표님과 함
께 직원들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전 직원 봉사활동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단체 참여

<행복나눔> 참여

가게 혹은 기업에서 수익금의 1% 또는 일부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참여

후원 계좌 _ 국민은행 010-01-0975-871
제일은행 150-10-013794
농협 031-01-433638
기업은행 017-033086-01-038
신한은행 140-00-5428327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우체국 010983-01-003220
우리은행 014-039161-01-601

후원 문의 _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5-15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 _
TEL 770-813-0899

전인치유사업(Healing) 만사(1만원), 천사회원(100만원)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의 진료 운영비및 의료장비 보강,
시설물 확충과 개안수술지원, 국외의 구순구개열 수술지원등을
위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10-01-0975-871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무료급식사업(Feeding) 매월 5천원부터

국내 노숙자, 독거노인 및 제3세계의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비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장학사업(Teaching) 매월 1만원부터

국내 및 제3세계의 인재를 길러내는 장학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10-01-0619-487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비전사업 1004만원 후원

다일공동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10901-04-064419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보험상품을 통한 참여

사랑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
시면 귀하의 보험료 일부가 다일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문의 : 02-2212-8004)

사랑의 보험 1°C(일도씨)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다일복지재단을 수탁자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연령별로 약
1~2만원의 보험료로 1천만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 복지재단의 비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전창근 원장 M 1-773-621-3981

국내분원 후원계좌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받퍼나눔운동본부 후원계좌 | 국민 010901-04-037581
다일천사병원 후원계좌 | 국민 010-01-0975-871
다일작은천국 후원계좌 | 국민 467701-01-224504
설곡산다일공동체 후원계좌 | 국민 01091-04-064419
다일평화의마을 후원계좌 | 농협 031-01-434401 예금주_다일공동체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를 통한 후원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로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후원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다일공동체'에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지로용지는 각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지로후원 신청전화 02-2212-8004

* 지로번호 ▶ 7657249(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3. 인터넷에서 카드 결재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로 접속하시면 카드결제가 가능.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Y (사랑을 나누는) PARTNER

외환은행은 '나눔재단'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방법 <http://www.dail.org> tel 02-2212-8004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분원



중국다일공동체 이종원 원장
문의전화 86-433-753-8004
E-mail twojungwon@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이종현 원장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원장 / 김혜경 목사
문의 전화 070 8220 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본부장 / 김형길 목사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89-53-9977
E-mail light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부번 팀세나 부원장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huban12000@yahoo.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뉴욕다일후원회
회장 송병기 목사
전화 1-917-559-8877



서울다일후원회
회장 성원용 목사
전화 3-361-718-9723



미주다일공동체 원장 / 전창근 목사
문의 전화 1-773-621-3981
E-mail jcgstory@yahoo.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김은향 간사
전화 1-248-885-1505



윌리엄스
장희정 매니저
전화 1-770-813-0144



남주다일후원회
이진아 간사
전화 1-714-296-0396



노스캐롤라이나다일후원회
심종건 간사
전화 1-704-609-1325



뉴저지다일후원회
정선희 간사
전화 1-732-887-8378



뉴욕다일후원회
박미자 간사
전화 1-718-541-1668



디트로이트다일후원회
이혜영 간사
전화 1-248-885-1505



시카고다일후원회
이숙의 간사
전화 1-630-248-2193

국내 분원

발파니눔운동본부 전화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전화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전화 031-585-2004
다일평화의마미 전화 010-6289-9004